물동량수송에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삼호읍 용당리 모밀항마을 가로 지르는 1.71킬로미터 목포신항대체진입도로의 공사를 앞두고 시행청 직원과 설계담당자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바라 왔던, 얼핏 보기에 따라서는 여느 자연마을에 국한된 소소한 규모의 숙원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으나 더 들여다보면 주변의 대불국가공단. 신항만. 굴지의 조선기업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장래 이곳 일반공업예정지와 연계가 되어 원활한 물자수송 통로 역할로 기능를 발휘해 주리라 크게 기대를 걸어보는 '통로암거(통로박스)확장'과 교차로 부근의 '연결로 설치'건 민원이 극소의 미미한 반영으로 그치게 되므로 결국에는 아쉬움이 남은 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군의 대처 면에서 심하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는가 싶기에 본 도로 관련 마을대책위원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겪으며 느낀 점 과

주위 여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그 대 비책으로 이곳 용당리지역에 무엇이 시급히 필요한가에 대해서 몇 글자 올 려드리게 되오니 장황하고 두서없는 글이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차 설명회 날은 주민분들이 사전 정보 없이 참석하여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으므로 1년이 지나서야 작년 이맘때쯤 시행청인 목 포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확인하니

상당한 높이의 도로 아래로 농기계와 차량이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통로암거를 겨우 폭 3미터 넓이로 설계를 완성해 놓았기에 인근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대비하여 물자수송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넓이를 최소 9미터 폭의 확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본선의 교차로 부근에서 마을안 길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연결로 설치를 해달라고

두어 달 동안을 아침이면 출근하다시피 해양수산청을 좇아 다니니 공사과 담당자님은 영암군의 응답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문서를 보냈다 기에 어렵사리 마음 문을 열어 줌으로 감동이 된 나머지 아들 같은 녀석에 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곧장 영암군도시개발 과에 이장님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해양수산청으로 보낼 내용을 보자 하니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에 (마을이장님도 함께 동행하여 들었음.)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은 못 미더웠지만 설마 지역민이 그토록 바라는 바인데 우리 군에서 앞 장서서 설계는 변경 못하여 줄지언정 부정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을 것이라 며 애써 자위를 하고서 지역민들이 평소 존경해 마지않은 고천수 의원님사무실에서 차를 나누며 담소까지 나누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청이 영암군과 주고받는 내용이 아래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통로암거와 관련하여 영암군에 요청한 질의내용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대로 통로암거를 확장해 주기 위해서는 영암군의 기존 **농로 확장계획 유무에 따라 가능하다**"!!!!!!!!!! 라며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영암군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영암군의 답변

"현재는 마을도로 **확장계획이 없으므로** 폭 6 미터가 타당하다"라고 답장하므로 주민들의 폭 9미터 확장계획은 무참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도로1904-2외 구거 2필지 합하여 폭이 9미터이고 그중 농어촌공사 승인만 받고서도 폭 6 미터를 영암군 계획 의지 여하에 따라 손쉽게 확 포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영암군의 단순한 대응으로 협소한 통로로 인한 장래 물자수송이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연결로와 관련하여 영암군에 요청한 질의내용

주민들의 요구대로 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험과 장애가 예상되나, 지역경제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대화 중 발언임) "영암군의 도로등급계획 여하에 따라 연결로 설치를 고려해 본다"!!!!!!!!!!!!!!!!!!!!!!!!!!!!! 라고 해양수산청에서 영암군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 영암군의 답변

지구단위계획을 거론하며 "**그곳에 중로1-236 도로개설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군에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하겠으나 주민들의 가슴은 또다시 멍이 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정작 그곳에 도로개설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제아무리 지역에서 연결로가 필요하다 주장한들 그것과 중복교차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줄 용기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라 봅니다.

물론 영암군측에서는 중로236 도로계획이 공부상 공시된 사실을 없다 라고 거짖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겠습니다만 줄만 그어 놓은 채로 올해로 장장 십일 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싯점에 개설한다는 의지라도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공직자분이라면 지역의 막중한 사안임을 바로 인지하여 "장래 도로계획은 있으나 당장 개설은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므로 그때 가서 시설물을 철거할지라도 지역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우선설치해주길 협조 바란다"라고 요청만 하였어도 설계가 변경 가능해졌으리라

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역민들의 요청이 워낙 명분이 있었던지라 완강하게 거부를 해오더니만 "영암군의 계획에 따라 연결로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꺼내어 고심한 흔적을 들여다보면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불발로 끝나버린 숙원사업을 대외적으로 꺼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주민들만이 속앓이로 실상 그치려고 하였으나, 지난 일이지만 굳이 언급하는 바는 이토록 지역의 사활이 담긴 긴요한 문제를 단 한 차례의 의논조차 나누지 않은 행정행위로 인한 결과가 목포신항만과 대불단지와의 원활한 연결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추후 우리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악영향이만만치 않으리라 예상이 되겠기에 곧 뒤따르는 용당뜰 배수개선사업에 군과민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바램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첨부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암군이 도로개설계획이 있다 라고 시행청에게 알리었으며, 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긴급한 개발대책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계획된 도로라도 단계별로 시급히 시행해주셔서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억 국가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 군의 예산이 단 1푼도 편성되지 않을뿐더러, 영암군하고는 협의만이 있을 뿐이지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당초부터 시행청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진지하게 타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협조는 못 할지언정, 숙원을 해결하고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주민들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자하는데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해양수산청의 질의에 대해 겨우 서너 줄 밖에 안되는 내용을 마치 특 일급 비밀이라도 되는 양, 비록 한 줄의 언급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얼마만한 파장을 미치는지 감지를 못하고서 일언지하에 공개를 거절했던 영암군의 행정행위는 과연 올바른 행위인지...

시행청에서 무려 3차례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귀한 기회를 줬음에도 그리고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암군 의향을 묻는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임음에도 불구하고 숙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상처가 깊고 사안이 중하다고 여기기에 혁신,, 혁신을 바라시는 **우승희 군수님께서는 주민이 요** 청했던 답변서 공개를 거부했던 연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 시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도 도의원으로 지내실 적에 본 문제가 지역의 절실한 현 안으로 느끼셨기에 공청회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줄로 기억하고 있 습니다.

숙원 해결에 보탬을 주고자 삼석의원님 회의실에 무려 3차 공청회 기회까지

마련해주셨던 박시평 팀장님과

공청회 날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으시어 바쁘심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열 변을 토하시며 그나마 마을 도로와 일부 연결해볼 수 있는 여지로 도시계획 연장선을 시행청으로부터 기꺼이 확보해주신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께 용당 리 주민들은 고마운 뜻을 늘 간직하고 계십니다.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음지에서 수고를 아껴주지 않으십니다만 특히 두 분께 지면을 빌어 재삼 감사드립니다.

거듭 중복하여 부탁드립니다. 앞서 내용처럼 영암군에서 중로1- 236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교차로지점 최대의 숙원인 연결로 설치를 부득불 양보까지 하였으므로 질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내주신 작년 6.16일 자 회신에서 "향후 인근 여건변화 및 계획변경등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수십 차례 들어왔으므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대비책 가운데 그중의 하나로써 용당리 희망가아파트앞에서 멈춰버린 계획도로를 이어서 시급히 개설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